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파견기간	2017.09.14 ~ 2018.08.09
귀국여부	'아니오'인 경우 귀국예정일을 알려주세요.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 규모 및 시설 ,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제가 다녀온 학교는 도심과는 좀 떨어져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적한 도시에 위치해있습니다. 오사카라면 생각나는 난바나 우메다까지 전철로 40분쯤 걸리는 위치입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캠퍼스는 작았지만 평지로 이루어져 아주 걷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또 건물을 이어놓아서 수업을 들으러 옮겨 다닐 때 매우 편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아침에 등교를 할 때마다 동아리 활동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p>
2017-2학기 ~ 2018-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2017-2학기</p> <p>처음에 분반테스트를 하여 중급, 상급2, 상급1, 최상급으로 나눕니다. 반을 나누면 그 반에 따른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오고 수업은 어학수업이 대부분입니다. 문자/어휘, 독해, 청해, 문법, 작문연습, 문서강독으로 수업이 나뉘어져 있고, 전통문화연구 수업은 선택과목으로 기모노, 꽃꽂이, 서예, 전통악기 등이 있습니다.</p> <p>문자/어휘, 독해, 청해, 문법, 작문연습, 문서강독은 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배웁니다.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유학생들도 잘 이해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간중간 일본 상황이나 놀러 가면 좋을 곳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시험 또한 어학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p> <p>일본어사정특별연구 - 이 수업은 중급과 상급2, 상급1과 최상급 두 개</p>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일본 문화 등을 배웠습니다.  
 전통문화연구Ⅱ - 이 수업에서는 서예와 전통악기를 배웠습니다. 15주 수업에 두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정해진 수업을 듣습니다. 서예수업에선 처음에 한자를 쓰는 연습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들은 나중에 수료식 때 전시됩니다. 전통악기 수업에선 3개의 악기를 배우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악기인 것 같으면서도 달라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전통문화연구Ⅲ - 이 수업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반이 아닌 선생님이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사카구치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은 선생님이 먼저 관련 주제를 설명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발표합니다.

#### 2018-1학기

2학기때와는 조금 다른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2학기때엔 문자/어휘, 독해, 청해, 문법, 작문연습, 문서강독이 정해진 시간표였는데 작문연습과 문서강독이 없어지고, 커뮤니케이션과 문장표현이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커뮤니케이션 - 말 그대로 일본어로 회화를 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제를 가져오시고 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였습니다. 가끔은 토론도 하고 노래 가사를 보며 그 가사의 뜻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문장표현 - 작문연습이 문장표현으로 바뀐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문을 하였는데 선생님이 따라 쓰는 작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생각쓰기와 레포트 등을 작문하였습니다.

전통문화연구Ⅳ - 이 수업은 가라테수업입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하는 수업으로 유학생별과 선생님 중 가라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태권도와 같은 듯 달라 재미있었고, 여자학생의 비율이 많아 호신술 같은 것도 배웠습니다. 태권도의 품새 같은 것을 배워 수료식 때 사람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것만 빼면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실전일본어-청강) - 학부수업으로 청강으로 들었습니다. 실전일본어라고도 하며 수업은 일본인 학생들과 같이 듣지만 시험 같은 것은 보지 않고, 한 주씩 수업 내용을 레포트를 작성하여 나중에 유학생별과 학과장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일본에 도착한 다음날 국제교류센터의 나리타상이 하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안전문제와 건강보험 등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학교 필수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습니다.</p> <p>유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국제교류센터로 가서 출석체크를 합니다. 출석체크를 하면서 국제교류센터의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고민이 있으면 친절하게 들어주십니다.</p> <p>학부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학생이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투어, 타코야키 파티 등 유학생들이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p> <p>또한 칸사이공항 봉사활동이 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여름에는 정말 덥습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햇빛이 따가울 정도로 강합니다. 그냥 밖에 서있기만 해도 땀이 나옵니다. 겨울은 기온을 보면 확실히 한국보다는 춥지 않지만 몸이 기온에 익숙해져서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에 지진이나 폭우 등이 발생하였지만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p>

<div data-bbox="284 712 351 745" data-label="Section-Header"> <p>숙소</p> </div>	<div data-bbox="419 277 1345 1182" data-label="Text">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O)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이번에 새로 생긴 셰어하우스에서 지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왔을 때 다 지어진 신축이라 그런지 매우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여자들의 방은 3층이고 바로 위의 옥상에는 건조대와 테라스가 있습니다. 주방에는 수저, 젓가락, 그릇, 컵, 칼, 가위, 밥솥 등 조리기구가 완비되어 있어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욕실과 세탁실을 1층에 있고, 욕실은 샤워부스 2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전거도 대여해 주어 오랜만에 자전거도 타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고 자전거 타고는 더 적게 걸려 자전거를 타고 등교도 하였습니다. 셰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학교에 같이 다니는 유학생들이라 가끔씩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각 요일 마다 정해진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셰어하우스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여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세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더울 때는 아무 걱정 않고 에어컨을 틀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p> <p>연말연초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축하하여 파티도 하였습니다. 나베와 카레, 타코야키, 일본의 떡 등을 직접 만들어서 먹었습니다.</p> </div>
<div data-bbox="284 1503 351 1536" data-label="Section-Header"> <p>식사</p> </div>	<div data-bbox="419 1205 1345 1742" data-label="Text">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집에 조리기구가 있다 보니 직접 해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 점심시간에도 처음에는 학교식당에서 사먹었지만 돈이 꽤 드는 거 같아 도시락을 직접 싸서 먹었습니다. 밥에 볶음밥을 만들어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돌려 싸가거나 아침에 도시락을 싸거나 했습니다. 일본 인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는 풍경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귀찮을 때 학교식당을 이용했는데 카라아에덮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카라아게에 소스, 마요네즈가 뿌려져 나오는데 저는 마요네즈를 좋아하지 않아 소스만 뿌려 먹었는데 그 소스가 정말 맛있습니다.</p> </div>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세어하우스에서 제공해 준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였습니다. 걸어서도 10분이 걸리지 않는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지만 주어진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여 항상 타고 다녔습니다.</p> <p>집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에 역이 있는데 우메다나 난바를 가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 갈아타야 갈 수 있습니다. 대신 교토는 갈아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35만원	한국->일본 약 24만원 일본->한국 약 11만원
Fees		
보험료	학교 필수 보험 약 10만원 대 일본국민건강보험 월 약 17,000원	
숙소	월 46만원	방 값은 36만원이고, 나머지 10만원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요금을 포함한 값입니다.
식비	월 30만원 정도	
교통비	공항 리무진 버스 18,500원	학교까지 가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책값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나눠줍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한문으로 된 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집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반테스트를 통해 반을 나누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하고 갔다가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수준의 클래스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학점을 위해 들어야 할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반이 낮으면 듣지도 못해 나중에 학점인정을 받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여 자신에 맞는 반에 들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 일본에도 100엔 샵이나 다이소가 있으니 거기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 굳이 많이 사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잘 보지 못하여 중급으로 가서 학부수업을 바로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제대로 해서 들었으면 전공학점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빼면 모든 것이 항상 새로웠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끝나고 돌아오면 한 학기 밖에 남지 않아 일본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이 기회는 이번 밖에 없으니 제대로 즐기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서 아직까지도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사귄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은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느 회사를 취직할 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회사를 취직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일본에 직접 가서 배운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돗토리현 시카노 투어</p>	<p>단풍구경</p>
	
<p>벚꽃구경</p>	<p>교토 마메시바 카페</p>



고베 불꽃놀이 대회



도쿄타워